

JMLA 및 日本의 醫學圖書館界의 近況과 問題點

桑原 善作 著

朴 鍾 根 譯



梁會長을 비롯해서 KMLA (韓國醫學圖書館協會)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紹介받은 JMLA(日本醫學圖書館協會)의 쿠와바라 젠사쿠입니다.

이번에 KMLA 第11次 總會에 參席하게 되어 정말로

감사하게 生覺하며 더구나 오늘 「JMLA 및 日本醫學圖書館界의 近況과 問題點」에 對해서 저의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게 될것을 더없는 榮光으로 生覺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시다만 昨年 10月 저희들의 JMLA는 創立 50 週年을 맞이하여 보잘것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記念式典을 東京의 順天堂大學 圖書館 講堂에서 갖었습니다.

되돌아 보면 1927年 11月 11日에는 JMLA는 「官立醫科大學 附屬圖書館協會」로써 日本海에 면한 雪國의 新潟市에서 創設되었습니다. 이것은 5個의 官立醫科大學 圖書館長 및 司書 10餘名이 先驅者가 되었습니다. 會則을 만들고 재빨리 始作한 일이 加盟圖書館間의 相互貸借業務였습니다. 이 일은 그後에도 繼續해서 JMLA의 中心業務로 되어 왔습니다.

JMLA의 50年의 발자취는 여기 10여부들가지고 왔습시다만 「JMLA 50年 略報」를 보시면 大略 아실줄 믿습니다.

이 略報는 저희들의 機關誌인 「醫學圖書館」의 Vol. 23, No.1의 創立記念 特輯號의 첫머리에도

〈本稿는 第11次 韓國醫學圖書館協會 總會(1978. 4. 29.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圖書館)時에 日本醫學圖書館協會의 事務局長인 桑原善作가 演說한 內容을 譯者가 通譯한 것임〉

桑原善作(Kuwabara Zensaku) : 日本醫學圖書館協會 事務局長
朴鍾根 : 서울大學校 圖書館 司書官

실려 있으므로 이미 보신분도 계실줄로 生覺합니다.

저희들 JMLA에서 現在 하고있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各種委員會의 活動에 對해서 가장 알기 쉬운 것입니다. 委員會는 10餘個로 나뉘어 있는데 그의 주된 것에 관해서 몇가지 頭序없이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醫學圖書館」 編輯委員會입니다. 「醫學圖書館」은 JMLA의 機關誌로써 季刊으로 나오며 KMLA의 機關誌인 「韓國의학도서관」과 交換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機關誌는 1954年 洋書輸入商인 丸善株式會社의 援助를 얻어서 1954年 1月 30日付로 創刊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해가 감에따라 進展을 보게되어 協會 自身이 自力으로 發刊할 수 있게되어 지난 1976年 10月 5日付로 完全自主的으로 最初의 號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廣告 掲載라고 하는 形式으로 協力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現在 Vol.23, No.4 까지 刊行되었습니다만 좀 이상한 것은 刊行日字가 過去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로 困難한 일이 생기는데 1979年中에는 正常的으로 날자를 맞추어 나올 수 있도록 會員一同이 熱心히 努力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醫學圖書館員 세미나 및 研究集會 各實行委員會라고 하는것이 常設되어 있는데 세미나는 圖書館 經歷 3年以上 워크 샵은 3年未滿을 對象으로 하여 各各年 1回式 施行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第1회가 1974년에 大阪에서, 워크 샵은 1966년이 第1회로써 이때에는 東北, 九州 2個 地區에서 行해졌었습니다.

셋째로서는 會則改正檢討委員會인데 이 委員會는 昨年 10月의 總會때에 會則이나 諸規定의

全面的인 改正을 提案하고 特히 지금까지 縣案 問題였던 正會員으로써의 製藥會社 3個社에 對하여 5年後에는 自動的으로 脫會하도록 決定하여 職種이 다른 會員의 混在問題를 解決하였습니다. 그리고 新準會員制를 새로히 만들어 舊準會員으로써 正會員으로 格上된 以來 5年이 經過하여도 아직 現在의 正會員으로써의 基準에 達하지 못한 正會員은 自動的으로 新準會員이 됩니다. 거기에 特히 國立의 新設 醫科大學圖書館은 創立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正會員入會 加盟의 基準에 達하지 못하는 것이 現狀이며 이러한 圖書館들도 新準會員으로 加盟해서 全國的인 서비스 넷트-워크를 緊密히 하고 있습니다.

本協會는 醫學圖書館界와 똑같이 發展하고 있으며 時間의 흐름과 學問技術의 飛躍的인 進歩에 對處하기 爲해서는 이 委員會는 앞으로 더욱더 重大한 使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出版委員會인데 이것 亦是 JMLA의 貴重한 商品을 맡고 있는 곳으로 「現行醫學雜誌所在目錄」의 年刊은 文部省으로부터 學術出版物, 二次資料 刊行物을 每年 60萬Y 前後의 刊行費補助를 받아 만드는 것으로 Interlibrary Loan의 tool으로써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目錄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31年의 「醫科大學共同學術雜誌目錄」이며 이어서 1957年에 刊行한 「輸入豫定雜誌目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醫學雜誌總合目錄：歐文篇」은 1977年 10月에 第6版을 刊行하고 「和文篇」 第6版도 곧 着手할 段階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964年에는 現在의 慶應義塾大學 醫學情報센터—內에 「醫學文獻센터」를 設置하여 그 業務를 同 센터에 委託하였는데 相當히 잘 利用되고 있으며 이들 單行本의 基本카드를 冊字目錄으로 만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出版費用은 勿論 編輯刊行 事務量이 너무 많아서 目下 考慮中에 있습니다. 이것 亦是 그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文部省의 助成金으로 1949年에 第1冊을 내고 1956年에 8卷 8冊을 完成한 「醫科大學總合洋書目錄」입니다.

現在 着手中인 것으로는 「Mesh用語의 英和對譯書」와 「Chemical Abstract의 使用法」으로 前者는 今年 10月頃, 後者는 7月頃에 刊行될 豫定으로 있습니다.

다섯째는 팩시미리 導入檢討委員會인데 이 委員會는 朴鍾根氏도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5年前부터 發足한 것으로 相互貸借 業務에 꼭 必要한 것이며 이것을 採用하는 것은 時間問題라고 生覺합니다. JMLA에서는 드디어 今年 5月 下旬부터 6月末까지 有力한 2개의 機種에 對해서 批較實驗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東京地區 4個館과 埼玉, 栃木の 二縣에서 2個館이 이미 여기에 參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팩시미리는 10種以上되는 各메이커의 機種間에 互換性이 없어서 本委員會로써는 高速性이나 明瞭性에 重點을 두고 機種의 選定에 慎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이밖에 國立醫學圖書館 設立推進委員會等도 슬슬 活動을 하고 있습니다만 本協會 自體가 아직 弱體이기 때문에 政府 特히 文部省이라든가 厚生省等の 關係機關을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겠는가가 問題가 되어 있습니다.

NLM이나 BLLD나 EM과 같은 곳과 國際的인 協力과 交流를 圖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勿論 貴國과의 相互協力이나 親善圖謀도 마찬가지입니다.

1951年 第13回 「日本醫學會」 總會때 學術展示會에 처음으로 本協會도 參加했었습니다만 거듭해서 來年 4月에 東京에서 開催 豫定인 第20次 日本醫學會 總會에는 總會行事의 一部로써 「未來의 醫學圖書館」像에 關한 展示에 關해서 積極的인 參加를 主催者로 부터 要請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關해서년도 가까운 將來에 委員會가 構成될 것으로 生覺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MEDLARS 對策委員會 等等이 있습니다만 時間 關係上 省略하겠습니다. JMLA에서는 每年 外國의 醫學圖書館協會의 年次·總會에의 參加를 會員에게 권하고 있는데 今年에는 6月中旬에 美國 시카고에서의 第78回 總會에의 參加者를 募集中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國外로는 貴國을 비롯하여 歐美諸國과의 交流, 協力을 推進하고 國內에서는 例를 들면 「醫療情報 서비스 關係 團體 懇談會」의 멤버가 되어 1975年 2月 10日에 第1回의 會合을 갖았었는데 現在는 中斷되어 있었습니다. 日本藥學圖書館協議會等과도 緊密한 連絡을 갖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JMLA의 業務로써 한가지 會員에게 즐거운 일은 亦是 NLM에의 複寫서비스 供與 中繼役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976年에 美國에서 Copyright laws가 大幅改正되어 今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잘못 施行한 것이 많았으나 最近에는 正常的으로 본 케도에 들어선것 같습니다. 貴國圖書館協議會나 各 圖書館에서는 어떠한 狀況인지 다음에 알아 보고 싶습니다.

NLM에의 複寫 請求問題는 貴國 圖書館과 같이 各圖書館이 直接 申請하는 方向으로 해볼까 하고 생각중 입니다.

이제 演題에 들어 있듯이 저희들의 問題點에 對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當協會가 內包하고있는 財政事情의 惡化라는 것입니다. JMLA가 如前히 有明無實한 法人이라는 것도 이 財政問題와 關聯되어 있습니다. 財政적으로는 正會員이나 準會員의 增加를 꾀하고 年額이 5萬¥인 贊助會員을 늘리고 業者나 關係團體로부터의 援助 다시 말해서 寄附金을 받아서 겨우 維持하는 정도 입니다.

貴協會와 같이 團體會員 以外에 個人會員 問題도 生覺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實現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다음에 日本의 醫學圖書館界를 보았을 때 어평든 눈에 第一 잘 띄는것은 全國의 모든 縣에 醫學大學을 적어도 하나씩은 두고 이에 따라 醫科大學이 있는 縣에는 반드시 醫學圖書館이 있

어야 한다는 活動입니다.

國民 1人當에 對한 醫師數가 적다는 것은 다 아는 事實이면서도 한편으로는 自治醫科大學이라든가 產業醫科大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一般의인 養成이 目的이 아니고 獨自의인 設立 趣旨을 갖인 醫科大學이 생겼다는 것은 注目할 만 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文部省은 1977年度 豫算에 外國學術雜誌의 購入費를 大量으로 投入하여 地域別 또는 全國的으로 共同利用 할 수 있는 센터의 構想을 檢討하고 있습니다.

醫學圖書館에는 없지만 病院圖書室協議會도 東京과 大阪을 中心으로 各各 結成되어 活潑한 活動을 始作하고 있습니다만 本協會는 이들 團體에 對하여 KMLA와는 달리 消極的이고 閉鎖的인 態度라는 非難도 들리지만 本協會는 加盟은 시키지 않고 있지만 可能한 限 協力하고 있음은 勿論입니다.

病院圖書室이나 市內의 開業醫에게 까지 開放한 醫學圖書館의 서비스 問題는 앞서 말씀드린 國立醫學圖書館 設立等의 問題와도 크게 關聯되는 것이지만 個個 醫學圖書館의 問題로써는 亦是 開館時間의 延長等이 懸案問題이겠습니다. 開館時間內에라도 비록 歐美諸國과 같은 水準의 서비스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모로 더욱더 努力하고 改善해야 되겠습니다.

대개 豫定時間이 다 된것 같습니다만 JMLA의 第49次 總會는 10月 13日 東北地方의 岩手縣의 花卷溫泉에서 開催됩니다. KMLA에서는 1973年度 초가을의 第44次 總會에 이어서 다음해 10月初의 第45回 總會에도 두분이나 參加해 주셔서 많은 交流와 親睦이 됐다고 生覺합니다.

오는 第49回 總會에도 꼭 여러분이 參席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